



다조아 TV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다조아뉴스

다조아뉴스는 부천시협동조합협의회에서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개설한 다조아TV 홍보채널의 소식지입니다.



이음플러스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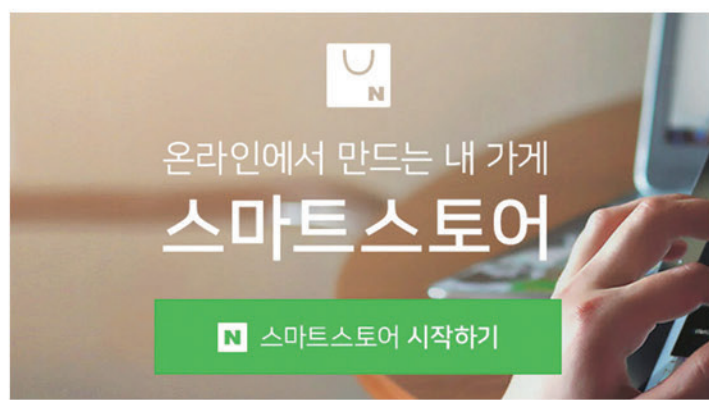
이음+ NEWS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발행 이음플러스뉴스·다조아TV | 편집인 오 산 | 발행일 2020년 10월 30일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361, 3층 (춘의동) | 연락처 032-673-0579 | 홈페이지 www.eumplus.net

- 01
· '다조아장터' 웹스토어 구축, E커머스교육 시작
· 시루작은도서관 '소소한 갤러리' 오픈
- 02
· 진안버섯마루에 다녀왔어요
· 언택트의 답은 콘택트가 아니라 온택트
- 03
· 부천동네를 잇다, 숨은 그님 찾아 동네한바퀴
· 세무회계교육
· 야단법석 네트워크 파티
- 04
· 마흔모자립일터 케이터링 매장 '스위트 그린'
· 협의회 워크숍
· 다조아 네트워크 파티

코로나19로 취소된 지역축제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새로운 방안을 찾은 '다조아장터'

'다조아장터' 웹스토어 구축, E커머스교육 시작



"2020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으로 공유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이사장 오산)와 사랑이야기(이사장 김병관), 스마일어게인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최승주)은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하려던 '다조아장터'를 웹스토어 구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공유마케팅 사업으로 "조합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모두가 좋은 다조아TV·장터"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먼저, 미디어 관련 교육을 받고, 소식지 '다조아뉴스'를 발행하고, 홍보 채널로 '다조아TV'를 개설해 부천시 협동조합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축제, 마을축제와 연계한 '다조아장터'를 통해 협동조합을 알리고, 체험과 관측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다.

'미디어교육'과 '다조아뉴스', '다조아TV'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다만,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려던 '다조아장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모든 지역축제가 취소되어 장터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차일피일 뒤로 미루던 장터는 결국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왔다. 이음플러스를 비롯한 다조아 사업팀은 논의를 통해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하려던 '다조아장터'를 비대면 시대 상황에 맞게 웹스토어 구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네이버 스마트

어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통신판매사업자(제2019-경기부천-1805호)로 '다조아장터(dajoa-market)'를 운영하기로 했다. 웹스토어 구축을 위해 상세페이지 제작과 E커머스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E커머스 교육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이어진다. 웹스토어 상세페이지 제작은 예산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며, E커머스 교육을 통해 온라인 판매사업과 웹스토어 제작 및 운영 전반을 교육한다. '다조아장터'와 '다조아TV'에 대한 상표등록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루작은도서관은 '소소한 갤러리'를 만들어 협동조합들의 제품과 서비스 홍보를 돕고 있다. 웹스토어 '다조아장터'와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보고, 구입할 수 있는 상설 매장을 갖게 된 것이다. 부천 지역 협동조합들을 위한 온라인 마켓 '다조아장터'와 오프라인 매장 '소소한 갤러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들에 새로운 방안이 되기를 바란다.

글 | 오 산(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시루작은도서관 '소소한 갤러리' 오픈

'다조아장터'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거듭나

시루작은도서관(부천시 길주로 361, 부천고등학교 총동창회관)에 소소한 갤러리가 만들어졌다. '시루'는 도서관에 공간과 진열장을 마련해 부천에 있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청년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갤러리를 만들었다.

'소소한 갤러리'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협동조합 제품을 직접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수료 없이 전시·판매를 대행한다. 또한, 각종 체험이나 교육, 상담서비스 등은 시루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현재, 입점 기업으로는 ▲에코수협동조합(대표 박필수)이 천연비누, 향초, 디퓨저 등을 전시·판매하며, 향초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을 모집한다. ▲북사골공예협동조합(대표 이인순)은 '에코디어'란 브랜드로 천연수세미, 소창행주 선물세트와 북사꽃이 그려진 머그컵을 판매한다. ▲작한농부협동조합(대표 한효석)은 목이버섯 주문을 받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에플하우스(대표 김경숙)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화분과 연필 등 다양한 소품을 전시·판매하며,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관련한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독도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쥬넨탈코리아(대표 김용대)는 판매 수익 일부 (사협)이음플러스에 기부하여 지역 청소년과 독도 탐방을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년기업으로는 부천시 노사정위원회가 운영하는 '일드림센터'에서 창업과 1인미디어 교육과정을 마친 ▲아르소(대표 오승지) ▲캘리블로썸(대표 소라) ▲이디놀이심리연구소(대표 이유민)



가 자리를 잡았다. '아르소'는 마크라메와 가족소품을, '캘리블로썸'은 캘리그래피와 캐릭터 초상화 등 체험과 선물용 소품을 판매한다. '이디놀이심리연구소'는 감정관리, 복합 커뮤니케이션, 놀이교육 등을 진행한다.

부천시협동조합협의회(대표 최승주) 위탁을 받아 (사협)이음플러스에서 운영하는 '다조아장터'는 네이버와 쿠팡 웹스토어에 플랫폼(dajoa-market)을 마련해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시루 '소소한 갤러리'는 온라인 판매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직접 시민과 만나는 마을 공유공간에 전시와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소한 갤러리'가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청년기업에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

글·사진 | 오 산(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가늌으로 하는 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자기탐색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교육

자존감향상 교육

인권교육

자해예방 교육

성관련 교육

자살예방 교육

010-7656-7276

진안 버섯마루에 다녀왔어요

착한 먹거리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착한농부들

10월 10일, 토요일에 우리 조합원 일행이 전라북도 진안 버섯마루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지난 2년동안 배지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배지로 제대로 키우고 싶은 생각에 재배 농가 사이에 평판이 좋은 진안 버섯마루를 방문하고, 배지 상황을 직접 보고싶었습니다.



버섯마루는 버섯 배지를 만드는 사업, 버섯으로 식품을 만드는 사업, 이렇게 두 파트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쏘아온 열정 덕분에 시설 규모가 크고,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표고버섯 배지를 만들지만, 목이철에는 목이버섯을 20만개에서 많으면 40만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목이버섯은 배지가 70을 좌우하고, 농민 노력은 30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은 배지를 직접 만들지만, 사실 1년내내 배지를 만드는 전문가를 당해내지 못하죠. 주부가 만든 냉면이 냉면 전문점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 농민이 각자 배지를 만

들지 말고, 생산 과정을 잘게 쪼개 철저히 분업화하여 농민은 생산만 담당하고, 배지 제조 따로, 유통과 마케팅이 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버섯마루 식품 가공장 옆에 100평 이중 비닐 하우스에 배지 1만개가 오염 하나없이 6~7단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처럼 배지가 좋으면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타공수 많고적음이며, 3단 현수 또는 6단현수 고민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버섯마루 사장님이 수확율을 단언하지 않지만, 실무게 1kg 배지 120타공(8구멍×15줄)에서 목이버섯 1kg 이상을 수확할 듯합니다. 10~15g 버섯을 70~80개만 따면 되거든요. 편차없이 똑 고르게 자란 목이버섯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현재 우리 배지 상황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버섯마루 사장님이 그간 배지를 농가에 5천개나 1만개 단위로 팔고 2000개, 또는 3000개를 팔지 않던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짐작했던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장 어떤 배지는 목이가 바글바글 달렸는데, 어떤 배지는 이제 눈이 겨우 나옵니다. 생육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배지 제조 날짜가 너무나 다른 것이 마구 섞인 겁니다. 그래서 배지마다 물을 먹는 상황이 달라야 하는데 큰 농에게는 물이 부족하고, 겨우 눈 뜬 농에게는 물이 과한 셈이죠.

“우리 버섯마루는 하루에 목이버섯 배지를 적어도 5000개 이상 만듭니다. 어떤 농민이 2000개를 사가면 한날 만든 배지에서 3000개가 남습니다. 이 남은 걸 포함하여 다른 농민에게 5천개 또는 1만개를 팔면 그 농민은 배지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을 섞어 가져가므로 생육 편차가 생깁니다. 지금은 소량 구매를 원하는 농민들 고충을 생각해서 미리 주문을 받아 몇 천개도 판매하지만, 우리는 1만개 이상 대량 구매해도 최대한 편

차없는 배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에게 시간을 많이 내주시고, 여러 조언도 해주셨는데 선물도 많이 주셨습니다.

조만간 흡쇼핑에 올리려고 한다는 버섯 간편 요리 그대로 세트와, 아무 때나 쉬 먹을 수 있는 버섯 음료입니다. 조합원들이 진안에 잘 다녀왔다고 하면서도, 버섯마루에서 잘 키운 목이버섯을 보며 우리 배지를 두고 많이 속상해 했습니다. 내년엔 우리는 무조건 여기 버섯마루 배지를 갖다 쓸 겁니다. 여태 왜 엉뚱한 곳으로 빙빙 돌며 이곳과 인연이 닿지 않았는지 후회스러울 뿐이에요.

글·사진 | 한효석(착한농부협동조합 이사장)



언택트의 답은 콘택트가 아니라 온택트!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발 한국경제 위기는 1970년 이후 한국경제가 경험한 과거 5차례의 대형 경기침체와 비교할 때 산업·업종부담별 침체(성장률)의 편차가 과거 경제위기(평균)에 견줘 2.5

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중‘Covid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공연예술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 온전한 데가 없지만, 그 중 공연예술계는 다르다.

지독한 빈곤은 대다수 공연예술인에게 애초 기본값이었다. 일찍이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공연예술인들의 대부분은 프리랜서이며, 그들은 지금 빈곤보다 더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무언가를 다시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다. 이 상황이 마술사로 살고있는 매직아워 황보현(제니)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눈코뜰새 없이 바빴던 그녀의 일상에 모든 강의가 미뤄지고 취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의와 공연으로 벌어들이던 수입이 반타작이 되더니, 결국 0이 되었다.

장기화 되는 ‘Covid19’사태에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현실앞에서 뭔가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대표적인 콘택트 시장인 마술! 늘 만나고 모여서 소통하고 즐기며 화합을 강조하던 공연산업이었는데, 언택트라니! 하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는 생존의 거리가 되어 버렸다. 두렵고 낯설지만 사람들 사이에 생긴 거리와 간격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온택트-비대면 강의”였다.



“마술이란 영역이 비대면 강의가 가능해?”라며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대면 ‘과학마술키트’를 손수 제작하고 온라인강의 커리큘럼을 표준화했다. ‘집콕마술키트’를 구성해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택배로 수령하고 키트를 활용해 라이브 강의를 시작하는 것. 그렇게 시작된 강의의 만족도는 실로 놀라웠다. 수업 후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인기강의로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소개에 소개를 묻고 밀려드는 강의로 코로나발 호황의 직격탄을 누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는 이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코

로나가 끝나겠지?”라는 무책임한 말로 이전 세상을 기다리기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져야 한다. 언젠가는 만나야 할 세상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준비하고 한발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19로 바뀐 세상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바쁘게 한가한 것보다는 낫고, 힘들게 슬픈 것보다 낫다고 했다. “작은 도전의 모든 결과가 지금은 미천해 보여도 결국 내 몸에 쌓이게 되고 내 인생에 고스란히 남아 나의 직업이 될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된 나를 만나고 도전해야지가 아니라! 자신 있게 반만 준비되면 그냥 시작하세요! 당연히 넘어질 겁니다. 그렇게 걷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꿈에 가까이 가 있을 거예요.”

황보현(제니)의 소명은 이 세상에 꿈꾸길 희망하는 모든 이에게 그녀의 재능과 전문성이 선행 영향력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누구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녀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글 | 황보현(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이사)

희망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032-323-9408

나눔가사
(보육서비스)

부천아가마지
(산후관리 서비스)

나눔간병서비스
(희망나눔사협
자회사)

방과 후
초등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해드림요양원,
해드림주간
보호센터)

부천, 동네를 잇다 '숨은 그님 찾아 동네 한바퀴' 일곱 빛깔 무지개로 통(通)하다!

부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마을공간 활성화 모임'



지난 9월 20일을 시작으로 10월 20일까지 일곱 곳의 마을공간을 탐방하는 '숨은 그님 찾아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에 동행했다. '동네 한바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모임을 축소하고, 비대면으로도 참석할 수 있도록 밴드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함께 진행했다. 나는 마을공간 일곱 곳을 탐방할 때 동행하며 공간을 소개하고 대표들의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을 담은 영상을 찍었다.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공동체, '여월2단지 커뮤니티 봉사단'에서 최은경 대표는 동계, 하계방학동안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단지 안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놀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파트 공동체가 더 활성화

되길 희망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시루작은도서관"은 '부천향토연구회 콩시루'가 '사협'이음플러스'와 함께 운영하는 학습·공유공간이다. 오산 대표는 '시루'는 지역주민 모두에게 전시, 문화, 학습공간을 제공하며, 부천의 역사, 문화와 자연,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교육하고자 만든 공유공간이라고 했다. 도서관이라는 학습공간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에 감탄했다.

지금이대로 좋다! '월예치료연구회'에서 운영하는 공간 '흙이랑 꽃이랑'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를 만나 편견과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어 좋았다. '흙이랑 꽃이랑'을 운영하는 정희진 대표 역시 원예치료전문가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누구나 함께 더불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힐링의 공간을 만들고 있었으며 원예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어 좋았다.

행복한 땀, 사랑 한 코, "바늘이 천을 꼭 찌를 때" 이름이 정말 아기자기해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고, 천이 주는 파스함이 공간 안에 가득 찼다. 섬유와 자연으로 창의적 작품활동을 기반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고자 하는 긍정에너지의 김선희 대표, 무엇보다 매사 모든 것에 긍정하는 마인드가 참 좋았다.

사람을 품는 마을 플랫폼, "가족공간네트워크" 신상현 대표의 다양한 정책에 감탄했다. '마을공간과 마을자치'를 키우기 위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만나 마을에서 할 일을 찾아내며, 공간과 재능을 공유하는 장을 펼치기 위한 과정을 기획하고, 마을 플랫폼을 만들어 추진하는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너와 내가 함께 꿈꾸는 공간 "꿈터" 김수가 대표인 이름 그대로 아이들과 청소년의 꿈을 키우기 위한 공간을 조성했다. '꿈터'에서는 독서토론 외에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나 역시 지속적으로 다양한 융합교육

을 위해 더욱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소새마을, 주민이 만들어 갑니다 "소새마을 기획단 소마단" 신승직 대표는 마을의 향토문화를 공부하고 현장을 조사하며 느낀 게 많다고 한다. "아이에게 꿈을... 청소년에게 배움을... 어른에게 향수를 주는 소통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신승직 대표는 "찾아가는 마을이 아닌 찾아오는 마을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부천, 동네를 잇다 '숨은 그님 찾아 동네 한바퀴' 정말 한 달 동안 부천 곳곳을 돌며 '숨은 그님들'을 찾은 것 같다. 그들은 그 동네에서 이미 알려진 유명인사이지만 나처럼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숨은 그님'이었다.

그들이 마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니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천에 이렇게 멋지고 좋은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다음을 기억해 본다.

한 사람, 한 곳, 찾아가며 느낀 점은 모두가 부천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적 가치실현에 무게를 두고 힐링과 행복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나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 부천의 또 다른 '숨은 그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또 다른 '숨은 그님'을 기대하며!

글·사진 | 이유민(이음플러스심리상담센터 이사)

협동조합의 미래, 함께 나누다

경기도협동조합 세무지원 및 지역 연대 네트워크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는 지역 연대 네트워크 사업으로 협동조합이 고민하며 대처해야 할 세무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세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를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유성무(노아텍스 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김영민(노아텍스 세무그룹 선임 실장), 최상순(노아텍스 세무그룹 협동조합과 지원실장) 등 세 명의 패널이 ▲협동조합 고유의 회계(출자금, 배당, 적립) ▲협동조

합 세무(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무제표의 의미와 작성법(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회계의 기초이론과 협동조합 세무 네트워크를 강의한다.

부천은 지난 10월 15일(목) 스마일어게인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장에서 복사골공예 이인순 이사장과 실무자, 착한농부 한효석 이사장, 스마일어게인 최승주 이사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세무기장 상황을 공유하고, 회계의 기초이론을 배웠다.

이날 교육에서 복사골공예협동조합 이인순 이사장은 "아직 기장을 한 번도 안해봤습니다. 과거 기장 정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고, 착한농부협동조합 한효석 이사장은 "세무사들과 상담을 많이 해 보았는데, 협동조합만의 특별한 세무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협동조합을 잘 아시는 세무사님이 필요합니다."라며 세무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글 | 오 산(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2020. 부천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부천시 마을공간 활성화 모임

부천, 동네를 잇다 "숨은 그님 찾기" 네트워크파티

야단법석

2020.11.8(일) 오후 2시~5시

주최 | 부천시 마을공간 활성화 모임 장소 | 시루작은도서관

축하 공연

오원노래단

동네 한바퀴 아카이빙

무지개 빛 일곱 공간 탐방기

야단법석

무지개 빛 일곱 대표 좌담회

네트워크 파티

[노빛 그린] 케이터링

디자인에 감동을 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해냄기획사회적협동조합

032.719.4981

코로나19, 해고·폐업에 맞서는 소년희망공장 미혼모자립일러, 케이터링매장 “스위트 그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작된 셧아웃 사태는 자영업자와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하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렸다. 기존 비정규직노동자, 식당 일용직 등 비숙련노동자들의 일감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지난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노동자들의 상황은 지난 6개월 동안 더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셧아웃 사태 관련 ‘국민일보’의 9월 22일자 보도 도입부이다. 자영업

자들은 불황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치면서 영업 중단 또는 축소 등의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월세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고, 연체 이자에 쫓기다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무섭다.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스마일어게인’ 또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운영하는 ‘소년희망공장’은 위기 청소년과 미혼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이지만 업종은 3명 중 2명이 망한다는 자영업이다. 이 업종을 선택한 것은 위기 청소년과 미혼모들이 선호하고, 기술 습득이 쉽고, 대중적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소년희망공장 1호점은 술한 어려움을 극복, 흑자로 전환하면서 우수매장에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미혼모 자립을 돕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만든 소년희망공장 3호점에서 발생했다. 소년희망공장 3호

점 “스위트 그린(케이터링 전문매장)”은 지난 7월 개업했다. 3호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와 글로벌 유통기업 “에데미(회장 박한길)”의 2020 공모사업 ‘생명을 여기는 맘(생소맘)’프로젝트에 ‘스마일어게인’이 선정되면서 소년희망공장 3호점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선정될 때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케이터링 매장은 1년의 시범사업과 준비를 거쳤고, 때마침 지원이 결정되어 소년희망공장 3호점 “스위트그린”의 문을 열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에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다.

소년희망공장 3호점 ‘스위트그린’에는 미혼모 3명 점장이 일하고 있지만, 미혼모의 환경적 특성과 코로나19사태로 근무시간의 제약을 받거나, 아이가 아프면 출근을 하지 못해, 2명의 미혼모가 9월

에는 1주일도 근무하지 못했다. 이런 제약을 극복하고자 ‘청년일체형’ 지원사업으로 청년 3명을 채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 지금의 일거리에 비해 직원이 지나치게 많지만,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인원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있지 않다. 지원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부천여성회관’과 함께 맞벌이부모 자녀를 위한 ‘워라벨 도시락 지원사업’ 등의 케이터링 납품과 지역 협동조합들의 케이터링 납품을 하고 있어, 많은 힘이 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자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 근본이겠지만, 그 전에 공공의 지원이나 지역 기관들의 상호 협력이 자력의 힘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소년희망공장의 “스위트그린”도 지역기관들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글·사진 | 스마일어게인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서부 권역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2020년 부천시 협동조합협의회 워크숍

경기 서부 권역의 협동조합들 간 연대 협력의 장 마련으로 협동조합 권역별 연대 강화 상호 거래 및 공동사업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

- 목적** | 경기 서부권 협동조합협의회 통합 워크숍, 협의회 간 소통과 정보공유
- 대상** | 경기 서부권 협동조합협의회 임원 및 회원사 임직원 20명
- 일시** |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10:00~17:00)
- 장소** | 시루작은도서관



시간	프로그램	내용
09:30~10:00	등록	등록 및 인사
10:00~12:00	“협동의 심리학”	심리전문가와 함께 -내 안의 감정상태 진단 후 감정, 약점 찾고,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는 협동의 심리학
12:00~13:00	점심식사	케이터링 [스위트 그린]
13:00~14:00	2021 비전캘리	2021년 조합 비전 세우고 캐리로 써보기
14:00~16:00	“2020 협동조합”	부천, 시흥, 김포, 광명, 안산 등 협의회 대표 발제
16:00~16:30	2021 캐리캘리	캘리로 써보는 조합의 캐치프레이즈
16:30~17:00	“비대면시대 협동조합이 갈길”	부천, 시흥, 김포, 광명, 안산 등 협의회 대표 발제한 내용으로 토론
17:00~	정리	정리 및 귀가

다조아 네트워크 파티

2020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다조아TV”, “다조아장터”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와 스마일어게인, 사랑이야기가 컨소시엄으로 새롭게 만든 공유마케팅 브랜드입니다. ‘조합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모두가 좋은 다조아TV·장터’는 부천시 관내 협동조합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SNS 홍보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장터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2020년 다조아 사업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부천시 협동조합 네트워크 파티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7일(토) 14:00~17:00
- 장소** | 시루작은도서관(부천시 길주로 361)
- 주최·주관** | 사회적협동조합 이음플러스 / 사랑이야기 / 스마일어게인
- 후원** | 경기도 / 부천시협동조합협의회

프로그램	내용
01 축하공연	우리하나예술단
02 아카이빙	다조아TV
03 북콘서트	다조아장터
04 네트워크 파티	스위트그린

부천YWCA 돌봄과 살림 협동조합

돌봄서비스
(가사관리·산후관리)

032-668-9700

천연 비누
천연 샴푸
천연 물비누

사랑이야기

032-719-2369

종이신문·인터넷신문

www.kongnews.net

032.672.7472

공뉴스신문
www.kongnews.net

Eco'Soo

천연비누·디퓨저

· www.ecosoo.co.kr
· smartstore.naver.com/eco_soo

032-221-0909

미디어 제작 및 교육
지역사회 기반 연구조사 및 컨설팅
세계공동체문화담사
출판간행물
문화공간 비지트[B:zit]

www.coopiu.modoo.at

032.7654.2825

·부천시 바우처 제공기관
·경기도교육청지정 대안교육기관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통합 가족상담 서비스
이음플러스의 공감 케어 서비스

www.eumplus.net

032-673-0579